

#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 김관영 도지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년이 시작됩니다. 128년을 이어 온 전라북도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우직한 사람이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산을 뚫고 푸른 숲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 도는 나무를 심는 사람의 마음으로 특별한 전북을 향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해내야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는 더해지고 역할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과 함께라면, 도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도는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특별한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 테스트베드'입니다. 특별한 전북에서 우리의 감정을 기회로,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우리의 도전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



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특화기업을 불러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농도 전북의 역사와 경험은 농생명식품바이오산업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향의 전통은 세계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국제교육교류로 새롭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의 무대가 될 특구와 단지, 지구에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 특례 등 창의적인 생각들이 시도될 것입니다. 이차전지·바이오·방위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기업의

를 이어가고,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으로 도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도와 기업, 대학이 협력해 우리의 아들, 딸을 전북의 주역으로 키우겠습니다. 세계적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특별한 전북의 힘찬 기운이 도민들의 삶 구석구석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 꿈을 향해 바쁘게 뛰는 해가 될 것입니다. 푸른 용의 해, 우리 도는 비바람과 고난을 견디고 하늘로 승천하는 등용문(登龍門)의 설화처럼 성장통을 이겨내고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도전경성(挑戰驚城). 우리의 도전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전북,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 서거석 교육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 용의 눈부신 기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계에는 세찬 풍랑이 일었지만 전북교육은 어려움을 이기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미래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수업 혁신이 일어나고 교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해서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두렵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사들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12년 만에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편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뤘습니다. 2500명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아가 미래로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이어서 재정운용을 가장

잘한 도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낸 전북 2만5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도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무척 기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 교육으로 전북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교육만큼은 '전북이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수준 높은 교육, 명품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매맞춰 올 1월 18일에는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제 전북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더 큰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새해, 희망찬 도전으로 뜻한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도민과 함께 새 희망의 역사 쓸 것”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올해는 전북이 더욱 새롭고 특별해지는 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우리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양한 특례를 통해 그동안의 지방차별 지역차별에서 기인한 소외와 낙후를 만회하고 전북만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패여부는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333개의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금융산업·외국인 특례 등 유일하게 전북에만 주어질 특례도 있고,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제도 특례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성과로 이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의회는 자치법규 준비를 서둘러 새롭게 부여받은 권한이 2025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흥역을 치른 새만금사업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공항 환단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밀고 밀리 구제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부여한 사명을 잊지 않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젊고 강한 전주, 전라도 수도로 대도약”

## 우범기 전주시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정통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8기 전주시가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전라도의 수도로 향하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총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자존을 무너뜨리지 않는 힘찬 내일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주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이 가까이 전주 대변하여



함께 주신 용기와 도전이 있었기에 전주시는 단 한 순간도 뜨겁지 않았던 날이 없었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전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모든 응원과 격려와 힘을 모아 전주의 큰 꿈을 바로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점별 도시성장 핵심 공간 조성'을 위한 전주 대변력 6대 프로젝트, '전주의 친란한 도약을 위한 10대 역점

전략'과 함께 전주는 패기와 열정, 가능성과 희망으로 삼성이 요동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힘차고 진취적인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천년의 땅에 당당하게 발을 디딘 자랑스럽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의 분향으로서 젊고 강한 도시 전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을 같이하며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나기 대도약하겠습니다. 전주시의 힘찬 발걸음을 시민 여러분의 애정과 격려로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자치분권 2.0 시대, 시민을 주역으로 세울 것”

##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세계적인 정세 불안으로 어려웠던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갑진년의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새해 첫 태양의 활력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대는 미래를 향해 빠르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더욱 빨라졌고 ChatGPT 등 생성형 AI가 인기를 끌며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지방



의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총원된 정책 인력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혁신의 차세대로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힘을 실어 왔습니다. 이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 자치분권의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치단 끝 자신들에 관한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바탕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지방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넓고 깊어질 자치분권 2.0시대에 전주시의회는 새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의 차세대로 더욱 시민을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쌓아온 저력으로 새해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하며, 전주시의회 또한 자치분권의 밑거름이 될 일선일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이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승리하는 군산 위해 전력투구”

## 강임준 군산시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2024년 도전과 변화의 상징(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실현을 위해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군산 새만금을 지키고 살려내는 데 하나된 목소리로, 기상 재해에 대비하고 맞서는 데 하나된 힘으로,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앞장



서는 하나된 마음으로,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로 함께 했습니다. 무한한 성원과 뜨거운 연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여느 때보다 시정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군산은 위기에 강한 저력의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37년만에 군산 상임교가 역전 우승을 하면서 '역전의 명수' 부활을 알렸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군산을 위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변화의 올 한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내외적으로 당당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역발전을 담당히 이루어 내는 승승장구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꿈을 꾸시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함께 도전합시다, 우리의 도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올 한해 '우리들의 군산'을 위해 우리시민 공동체의 힘을 모아주시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익산 대도약의 원대한 꿈 완성해 나갈 것”

## 정헌율 익산시장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정통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청룡처럼 비상하는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익산시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등 잇따른 굵직한 사업추진으로 기회와 희망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과 홀로그래프 산업 등 신산업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으며,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시가 가진 다양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함께



도시 곳곳에 정원을 가꾸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보석처럼 빛나는 문화도시를 만들었으며, 쇠퇴해가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익산의 변화는 이제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사 개청, 치유의 숲과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의 준공 등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 온 사업들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변화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탄탄한 기반 위에 익산 대도약의 원대한 꿈을 완성해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익산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따뜻한 연대로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언제나 익산시의 든든한 버팀목인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는 동심공계(同心共濟)의 마음으로 더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에도 청룡처럼 힘차게 비상할 익산시를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 “행복하고 풍성한 미래 향해 쉽 없이”

## 이학수 정읍시장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장 이학수입니다. 2024년 정통의 해, 갑진년(甲辰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펼쳤고, 유의미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통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 번영을 상징합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미래를 향해 쉽 없이 달리고 있는 정읍시와 잘 어울리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상사(祥瑞)로운 2024년에는 그간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